

WEBVTT

00:00:32.500 --> 00:00:34.187

안녕하세요?

00:00:34.212 --> 00:00:36.316

GSEEK의 임영주입니다.

00:00:36.341 --> 00:00:39.460

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

00:00:39.485 --> 00:00:42.785

모든 부모가 공감하실 텐데요.

00:00:42.953 --> 00:00:46.980

그런데 아이가 잘 크고
잘되기를 바라면서

00:00:47.005 --> 00:00:51.433

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랬다
저랬다 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.

00:00:51.458 --> 00:00:55.164

이랬다 저랬다는 이 방법도 해 보고
저 방법도 해 보고

00:00:55.189 --> 00:00:57.976

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
아이 키우는 비법이라면

00:00:58.001 --> 00:00:59.812

눈이 번쩍하는데요.

00:01:00.196 --> 00:01:05.515

다양한 이론들 속에서 오히려 또
엄마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

00:01:05.714 --> 00:01:06.746

그런데요.

00:01:06.771 --> 00:01:12.917

제가 정말 이 방법만큼은
아이를 키우면서 효과적이다,

00:01:13.373 --> 00:01:17.742

꼭 해야 한다라는 걸
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.

00:01:18.052 --> 00:01:21.980

바로 책 읽어주기의 기적인데요.

00:01:22.005 --> 00:01:24.753

여러분, 정말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.

00:01:25.163 --> 00:01:28.914

사람은 책을 만들고
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

00:01:28.939 --> 00:01:30.632

많이 들어 왔고요.

00:01:30.657 --> 00:01:35.925

그래서 그런가 보다.
독서, 책 읽기 중요하지, 뭐.

00:01:35.950 --> 00:01:39.031

이러면서 우리가 간과하는
경우도 있는데요.

00:01:39.056 --> 00:01:45.281

아이가 어릴 때부터
책과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건

00:01:45.306 --> 00:01:48.484

이후의 독서 습관에도
영향을 미치고요.

00:01:48.509 --> 00:01:52.332

그리고 정말 아이의 인생을
행복하게 해 준다는 확신을

00:01:52.357 --> 00:01:54.128

저는 하고 있습니다.

00:01:54.568 --> 00:01:57.976

아이가 만약에 책에 흥미를
느끼지 못 한다면

00:01:58.001 --> 00:02:00.027

아무리 좋은 책을 사 주고

00:02:00.052 --> 00:02:04.128

그리고 책이 좋아라고 설득해 봐도
소용이 없습니다.

00:02:04.153 --> 00:02:08.796

오히려 아, 또 책 읽으래 하면서
귀를 막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.

00:02:09.279 --> 00:02:13.250

부모님께서 책 읽는 습관을
들여줘야 하는데요.

00:02:13.528 --> 00:02:18.210

부모님이 먼저 책을 들고
아이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
00:02:19.321 --> 00:02:25.222

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거라니
어떤 책을 어떻게?

00:02:25.247 --> 00:02:28.230

오늘 저와 그 방법을
배워보는 거예요.

00:02:28.366 --> 00:02:33.503

아이가 어려서 책과 가까이 하면
독서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.

00:02:33.528 --> 00:02:37.625

이 습관이라는 건 아이도 모르게

어느새 책을 읽는

00:02:37.650 --> 00:02:39.109
그러한 것이거든요.

00:02:39.192 --> 00:02:43.933
저는 책 읽기의 근육을
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.

00:02:43.958 --> 00:02:48.406
부모님께서 아이에게
책을 읽어주는 것만큼

00:02:48.431 --> 00:02:50.867
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.

00:02:50.892 --> 00:02:54.246
예전에 보셨을 텐데요.

00:02:54.720 --> 00:02:59.597
자녀들을 굉장히 잘 키워 낸
부모님의 이야기를

00:02:59.622 --> 00:03:02.644
인터뷰로 본 적이 있었어요.

00:03:03.191 --> 00:03:07.527
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
강요한 적이

00:03:07.552 --> 00:03:10.574
정말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.

00:03:11.181 --> 00:03:14.402
뻔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?

00:03:14.427 --> 00:03:16.589
마치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

00:03:16.614 --> 00:03:19.460
저는 학원 한 번도
안 다녔습니다 하는 것처럼

00:03:19.485 --> 00:03:24.148
뻔한 얘기네, 어이없네라고
들으실 수도 있는데요.

00:03:24.173 --> 00:03:30.593
그런데 그다음 얘기를 듣고
저는 정말 진짜 그렇다라고

00:03:30.618 --> 00:03:35.222
그 어머니의 양육 방침에
완전히 동의를 해 버렸습니다.

00:03:35.828 --> 00:03:39.011
아이들이 학교 끝나고
집에 돌아올 때

00:03:39.036 --> 00:03:42.625
엄마는 항상 거실에서

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.

00:03:43.033 --> 00:03:47.214
그랬더니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서
책을 읽고

00:03:47.239 --> 00:03:51.414
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
잘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.

00:03:51.439 --> 00:03:56.863
물론 이런 경우에는 아이와 엄마가
잘 맞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.

00:03:57.001 --> 00:04:00.261
선생님, 그런데 저는 제가 아무리
책 읽기 롤모델이 돼도

00:04:00.286 --> 00:04:02.937
우리 애는 책 읽는 거
안 좋아하는데요 하는 경우도

00:04:02.962 --> 00:04:04.324
물론 있어요.

00:04:04.349 --> 00:04:08.679
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님이
아이의 거울이라는 것에

00:04:08.704 --> 00:04:11.921
동의를 하는 분들은 정말 그렇겠다.

00:04:11.946 --> 00:04:17.058
내가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
맞이하던 엄마가 책을 읽고 계셨어.

00:04:17.083 --> 00:04:19.265
그리고 우리 엄마의 모든 지혜와

00:04:19.290 --> 00:04:23.777
엄마의 품위 있는 말들이
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.

00:04:23.802 --> 00:04:25.476
책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?

00:04:25.501 --> 00:04:28.972
우리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
호기심을 갖게 되겠죠.

00:04:29.435 --> 00:04:33.699
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독서를
살펴봤어요,

00:04:33.724 --> 00:04:35.613
얼마나 책을 읽나.

00:04:36.038 --> 00:04:40.105
여러분, 1년에 1권 이상
읽은 사람이

00:04:40.130 --> 00:04:44.695
63%에 불과하다는 결과 아시죠?

00:04:44.791 --> 00:04:48.757
즉 3명 중에 한 분은 책을
안 읽는 겁니다.

00:04:49.138 --> 00:04:51.863
그러면서 아이에게 책을
읽으라고 하는 거예요.

00:04:51.888 --> 00:04:56.414
지금부터 엄마, 아빠가
책을 집어 드시는 겁니다.

00:04:56.439 --> 00:04:59.441
굉장히 다양한 주제로
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요.

00:04:59.466 --> 00:05:04.148
아이와 함께 서점에 들러서
책을 살펴보고 사보고

00:05:04.173 --> 00:05:06.355
도서관 시설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.

00:05:06.380 --> 00:05:10.691
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
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풍경.

00:05:10.716 --> 00:05:13.601
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같지 않은가요?

00:05:13.626 --> 00:05:18.308
저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이
책을 읽는 것도 추천하지만요.

00:05:18.333 --> 00:05:22.703
더 좋은 방법, 일거양득을
알려드릴게요.

00:05:22.728 --> 00:05:27.566
바로 부모님께서 책을 읽는데
누구의 책을 읽느냐 하면

00:05:27.591 --> 00:05:30.398
자녀들의 책을 읽는 겁니다.

00:05:31.347 --> 00:05:37.468
어? 부모님의 책이라는 건
사실 소설, 에세이 또 여행책 등

00:05:37.493 --> 00:05:40.496
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
자기계발서도 있고요.

00:05:40.521 --> 00:05:43.308
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

00:05:43.333 --> 00:05:46.633
책 읽는 게 마음만 있지라고

하는 분들은

00:05:46.658 --> 00:05:51.355
자녀의 책을 자녀에게 읽어주면서
책과 사랑에 빠진

00:05:51.380 --> 00:05:53.640
저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.

00:05:54.167 --> 00:05:57.467
제가 윤리와 사상 선생님을
만난 적이 있습니다.

00:05:57.492 --> 00:05:59.773
윤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,
아이들이.

00:05:59.798 --> 00:06:04.500
그런데 이분이 5살 딸에게
동화책을 읽어주면서

00:06:04.525 --> 00:06:07.136
책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
들었습니다.

00:06:07.161 --> 00:06:09.695
그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.

00:06:09.965 --> 00:06:13.953
아이들의 책을 읽다 보면
우와, 진짜 재미있다.

00:06:14.016 --> 00:06:19.714
모든 동화책, 동시가 정말 어른을
감동시키지 않는 작품이 없거든요.

00:06:19.739 --> 00:06:22.332
그러면서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고

00:06:22.357 --> 00:06:27.039
우리 아이가 잘 읽어주는 부모님의
이야기를 들으면서

00:06:27.064 --> 00:06:30.364
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이
향상되거든요.

00:06:30.574 --> 00:06:33.191
책 읽어주기
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

00:06:33.216 --> 00:06:35.789
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

00:06:35.814 --> 00:06:40.670
어릴 때 책을 읽어주는 것은
우선 아이의 서가를 만들어주시고요.

00:06:40.695 --> 00:06:44.402
거기에서 아이로 하여금
책을 뽑게 하는 겁니다.

00:06:44.427 --> 00:06:47.996

그리고 언제 읽어주면
좋은가요라고 할 때는

00:06:48.021 --> 00:06:51.804

사실은 평소에 틈나는 대로거든요.

00:06:51.829 --> 00:06:55.457

하지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
베드타임 독서.

00:06:55.482 --> 00:07:00.378

우리 아이가 잠들기 전에
베갯머리에서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

00:07:00.403 --> 00:07:02.781

베갯머리 독서라고도 합니다.

00:07:02.806 --> 00:07:04.675

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?

00:07:04.700 --> 00:07:08.132

저는 동화 구연을 잘 못하는데요라는
엄마도 계시는데

00:07:08.157 --> 00:07:11.042

엄마는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로

00:07:11.067 --> 00:07:13.152

그럼 아빠는 어떻게 읽어줄까요?

00:07:13.177 --> 00:07:17.585

울림이 있는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로
읽어주시면 되는데

00:07:17.610 --> 00:07:22.273

재미있게 읽어주세요라고 하면
저 재미있게 못 읽는데요라고 하세요.

00:07:22.298 --> 00:07:27.019

재미있게 읽어주라는 건
엄마와 아빠가 먼저 재미를 느끼고

00:07:27.044 --> 00:07:29.421

1차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.

00:07:29.446 --> 00:07:32.605

그 느낌을 아이에게 살려서
읽어주면

00:07:32.630 --> 00:07:36.628

바로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것이
되는 거예요.

00:07:37.043 --> 00:07:41.140

하지만 조금 기교를 저에게
알려달라고 한다면요.

00:07:41.390 --> 00:07:48.474

책에 있는 띄어 읽기, 쉬기,

마침표, 물음표, 느낌표

00:07:48.499 --> 00:07:51.804

이러한 문장 부호를 잘 살려서
읽어주신다면

00:07:51.829 --> 00:07:56.238

좀 더 생동감 있게
재미있게 읽어주실 수 있겠죠.

00:07:56.263 --> 00:07:58.894

같은 책이라도 엄마, 아빠가
읽어주는 게

00:07:58.919 --> 00:08:01.765

아이의 책 이해에 훨씬 많은
도움이 되고요.

00:08:01.790 --> 00:08:05.417

읽기 능력보다는 듣기 능력이
더 먼저 발달하고요.

00:08:05.526 --> 00:08:09.714

14세까지는 부모님께서
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

00:08:09.739 --> 00:08:15.085

현실적으로 14살이면 중학생인데
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것?

00:08:15.110 --> 00:08:20.144

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
10살까지만이라도

00:08:20.339 --> 00:08:22.078

우와, 정말 재미있다.

00:08:22.103 --> 00:08:25.906

이런 느낌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
읽어주신다면

00:08:25.931 --> 00:08:30.945

우리 아이는 책은 재미있는 것,
책은 참 행복한 것

00:08:30.970 --> 00:08:35.683

이런 느낌으로 책과 가까워지는
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.

00:08:35.708 --> 00:08:40.261

사실 부담을 갖지 마시고
오래 읽어주지 마시고

00:08:40.286 --> 00:08:43.328

많은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
부담감만 커집니다.

00:08:43.353 --> 00:08:45.671

아이의 집중력, 짧다는 거 아시죠?

00:08:45.696 --> 00:08:50.222

한 10분 정도가 굉장히 좋은
주의력, 집중력 시간이거든요.

00:08:50.247 --> 00:08:52.136
그래서 제가 권합니다.

00:08:52.161 --> 00:08:54.070
하루 10분.

00:08:54.095 --> 00:08:57.234
이렇게 아이에게 규칙적으로
읽어주면 좋은데요.

00:08:57.259 --> 00:09:04.246
역시 행복한 꿈나라로 가기 전
베드타임, 베갯머리가 참 좋습니다.

00:09:04.329 --> 00:09:07.058
그리고 아이가 평소에
심심한 것 같을 때

00:09:07.083 --> 00:09:09.148
핀란드의 경우에는 낮잠 자기 전에도

00:09:09.173 --> 00:09:11.863
아이들에게 책을 열심히
읽어주잖아요.

00:09:11.888 --> 00:09:15.188
우리 아이에게 엄마, 아빠가
너에게 책을 읽어주니까

00:09:15.213 --> 00:09:21.355
참 좋더라는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
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

00:09:22.315 --> 00:09:25.066
베드타임 독서로 조금 더
집중을 해 볼까요?

00:09:25.091 --> 00:09:28.073
엄마, 아빠가 잠자리에서
책을 읽어주면

00:09:28.098 --> 00:09:32.781
아이는 부모님의 따뜻한 체온과
사랑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

00:09:32.806 --> 00:09:37.312
애착 형성과 교감에
굉장히 효과적입니다.

00:09:37.337 --> 00:09:40.125
책 읽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
되어야 한다고

00:09:40.150 --> 00:09:42.878
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
00:09:43.181 --> 00:09:45.964
저에게 책 읽어주기에 대한

이야기를 하면

00:09:45.989 --> 00:09:48.386

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요.

00:09:48.411 --> 00:09:53.244

어떤 책을 읽어주어야 하느냐?
또 제가 읽는 책을 읽어줘도 되느냐?

00:09:53.269 --> 00:09:55.554

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.

00:09:55.579 --> 00:09:59.031

연령대로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.

00:09:59.134 --> 00:10:02.644

전집을 사서 읽어주려고 하면
엄마도 급하고

00:10:02.669 --> 00:10:06.550

아이도 사실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
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

00:10:06.575 --> 00:10:08.523

또 산 정성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

00:10:08.548 --> 00:10:11.101

그걸 또 다 시리즈로
읽어주려고 하거든요.

00:10:11.126 --> 00:10:14.207

아이와 함께 책을 고르면
참 좋겠고요.

00:10:14.232 --> 00:10:18.953

2살까지는 애착 형성에
도움이 되는 책이 아무래도 좋겠죠.

00:10:18.978 --> 00:10:22.605

3살까지 또는 4살까지는
정서적인 유대

00:10:22.630 --> 00:10:25.769

그리고 습관 형성에
도움이 되는 책이 좋은데

00:10:25.794 --> 00:10:30.457

이 닦아라, 정리 정돈해라,
옷을 잘 입어야 한다.

00:10:30.482 --> 00:10:34.285

이러한 습관들이 굉장히
중요한 시기가 바로 3~4세예요.

00:10:34.310 --> 00:10:38.718

이때는 책에 아이들의
일상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

00:10:38.743 --> 00:10:40.691

참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.

00:10:40.716 --> 00:10:44.011

그 책을 읽어주면 엄마가 굳이
이야기하지 않더라도

00:10:44.036 --> 00:10:46.785

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.

00:10:47.361 --> 00:10:52.683

5세~6세까지는 이야기가 중심이
되는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.

00:10:52.708 --> 00:10:54.714

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

00:10:54.739 --> 00:10:58.367

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것도
기억을 잘하게 되고요.

00:10:58.392 --> 00:11:02.683

읽어주었을 때 엄마의 질문,
엄마의 발문도 있어요.

00:11:02.708 --> 00:11:06.008

발문이라는 건 열린 질문이라는 것을
얘기하는데

00:11:06.130 --> 00:11:09.558

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
너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

00:11:09.583 --> 00:11:11.511

이러한 것도 가능한 것이

00:11:11.536 --> 00:11:14.460

바로 유아기 때
책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

00:11:14.485 --> 00:11:17.785

엄마의 좋은 질문법이라고도
할 수 있습니다.

00:11:17.976 --> 00:11:21.276

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.

00:11:21.620 --> 00:11:23.933

아빠들이 좀 부담
가지실 수도 있겠네요.

00:11:23.958 --> 00:11:28.562

아빠가 책을 읽어주면
아이가 더 똑똑해진다는

00:11:28.587 --> 00:11:30.886

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

00:11:31.098 --> 00:11:34.968

미국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요.

00:11:34.993 --> 00:11:40.066

아빠가 책을 읽어준 아이는
엄마가 책을 읽어준 아이보다

00:11:40.091 --> 00:11:44.727
어휘 발달이라든가 지능, 유아 언어,
인지 발달, 정서 발달이

00:11:44.752 --> 00:11:47.253
월등히 좋아졌다고 해요.

00:11:47.278 --> 00:11:50.125
물론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도
효과적이겠죠.

00:11:50.150 --> 00:11:54.636
그런데 아빠가 읽어주고
질문을 했을 때는

00:11:54.661 --> 00:11:58.562
엄마가 하는 질문하고는
굉장히 다르다고 해요.

00:11:58.587 --> 00:12:01.316
여러분, 엄마는 사과가
몇 개가 나왔어?

00:12:01.341 --> 00:12:03.562
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

00:12:03.587 --> 00:12:07.527
지난번에 아빠랑 같이
사과 따던 경험이 있었지?

00:12:07.552 --> 00:12:09.265
그때 어땠어? 라고 하면서

00:12:09.290 --> 00:12:12.590
조금 더 폭넓은 질문을
한다고 합니다.

00:12:12.956 --> 00:12:18.523
아빠가 아이와 무엇을 해야 하나
만약에 망설이고 있다면

00:12:18.548 --> 00:12:23.875
엄마는 아빠에게 아이가 좋아하는
책을 한 권 권어주세요.

00:12:23.900 --> 00:12:30.007
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안고
오늘 밤 베드타임 독서로

00:12:30.032 --> 00:12:34.246
친해지는 시간을 한번
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.

00:12:34.484 --> 00:12:38.562
아빠 육아와 책 읽어주기가
또 함께 만날 거고요.

00:12:38.587 --> 00:12:42.292
아이는 그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

00:12:42.514 --> 00:12:48.405

책 참 좋아, 아빠 좋아,
엄마 좋아, 책은 참 재미있어.

00:12:48.430 --> 00:12:50.203

그리고 나 행복해.

00:12:50.228 --> 00:12:54.695

이거야말로 책 읽어주기가
육아에 기적을 일으키고요.

00:12:54.720 --> 00:13:01.017

우리 아이의 삶의 길잡이가 돼주고
책 속에서 길을 만나고

00:13:01.042 --> 00:13:05.059

그리고 우리 아이를 만든다는
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.

00:13:05.084 --> 00:13:08.894

책 읽어주기가말로 우리 육아에
기적을 일으킨다는

00:13:08.919 --> 00:13:12.219

저의 확신이 들어 있는
이야기였습니다.

00:13:12.391 --> 00:13:16.941

지금까지 GSEEK의 임영주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